물가는 두 번 식었다, 코스피는 6.24% 뛰었다 — 유가 80달러가 아직 스포일러

화요일 미국 CPI에 이어 수요일 PPI도 예상보다 부드럽게 나오며 완화 기대가 굳어졌습니다. 같은 날 한국 코스피는 월요 급락의 상처를 하루 만에 크게 되돌리며 +6.24%(+427.58p) 급등해 7,284.41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는 1,484.7원까지 내려앉아 원화가 다시 강해졌지만, 유가는 여전히 80달러 선을 지키며 호르무즈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아래는 그 하루를 쉽게 풀어 읽은 안내입니다. 투자 추천이 아닙니다.

지표	S&P 500	Nasdaq	KOSPI	WTI	US 10Y
종가	**7,572.40**	**26,269.23**	**7,284.41**	**~$80**	**~4.55%**
Δ	1D +0.38%	1D +0.62%	1D +6.24%	박스권	1D 소폭↓
한줄	CPI+PPI 완화	완만 상승	폭등 반등	Hormuz 지속	인상압박 약화
as-of	2026-07-15 close (B) · PPI Jun −0.3% MoM·5.5% YoY · Dow 52,658.64(+0.29%) · USD/KRW 1,484.7원(−8.3원) · Gold ~$4,030–4,066(C)				

※ 의사결정 지원 자료입니다. 매수·매도 지시나 수익 보장이 아닙니다. 기준일: 2026-07-15 마감 · 작성 2026-07-16.

§1. 세계 경제 — 어제(7/15)를 쉽게

한 줄 요약

물가 두 지표(CPI·PPI)가 나란히 식으면서 완화 기대가 강해졌고, 그 힘이 한국 증시로 옮겨가며 코스피가 하루 만에 6% 넘게 뛰었습니다. 다만 유가가 80달러 선을 지키는 한 '완전한 안심'으로 읽기는 이릅니다.

물가 — CPI에 이어 PPI도 부드러웠습니다

미국 6월 생산자물가(PPI)는 전월 대비 **−0.3%**로 내려갔고, 전년 대비로는 **5.5%**를 기록했습니다(CNBC 07-15). 전날 CPI 완화에 이어 도매 단계 물가까지 진정 신호를 보내며, 시장은 연준의 인상 압박이 한 단계 더 약해졌다고 받아들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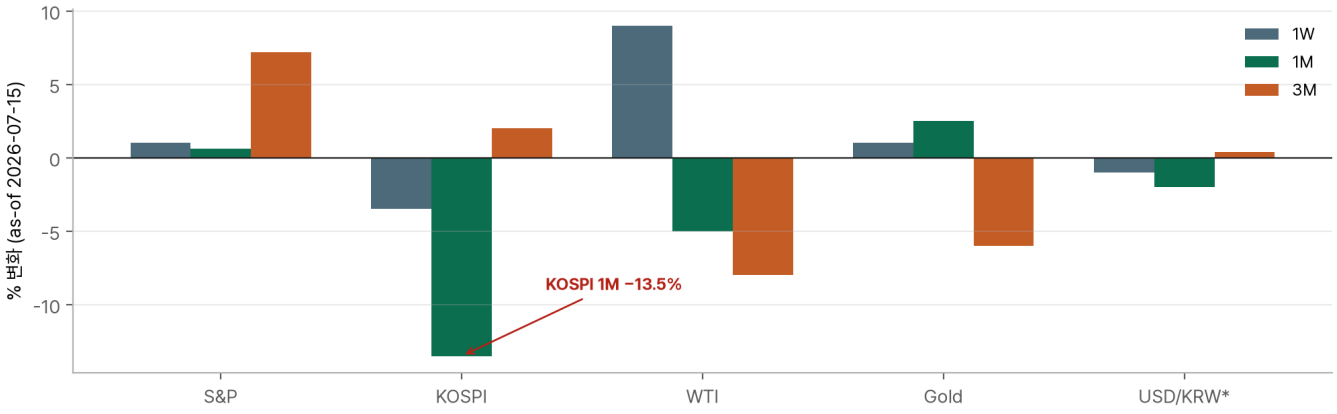
쉬운 말 · PPI: 기업이 원자재·부품을 서로 사고팔 때의 가격으로, 소비자물가(CPI)보다 한 단계 앞서 움직이는 신호로 읽힙니다. 전월 대비가 마이너스라도 전년 대비가 여전히 5.5%로 높다는 점은, 속도는 늦춰졌지만 누적된 물가 압력이 아직 다 사라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주식 — 미국은 잔잔하게, 한국은 폭발적으로

S&P; 500은 **7,572.40(+0.38%)**, Nasdaq은 **26,269.23(+0.62%)**, 다우는 **52,658.64(+0.29%)**로 사흘째 완만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CNBC 07-15). 물가 지표가 연속으로 부드럽게 나오며 랠리에 뒷받침이 붙었습니다.

코스피는 **7,284.41(+6.24%, +427.58p)**로 마감하며 월요 급락(−8.95%) 이후 가장 큰 하루 반등을 만들었습니다(Yonhap 07-15). 급락 뒤 저가 매수와 반도체·AI 인프라 관련주 중심의 되돌림이 지수를 끌어올렸다는 관측이 있습니다(HQ 해석). 하루 만의 폭등은 반갑지만, 아직 '추세 전환 확정'이라기보다 **급락에 대한 기술적 되돌림**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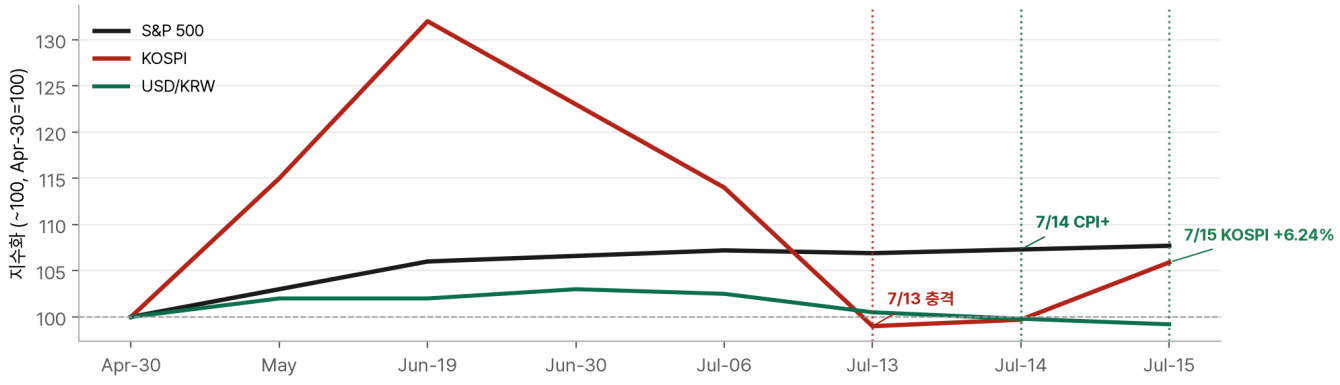
쉬운 해석: CPI·PPI는 식었지만, 코스피 급락의 상처와 유가는 아직 진폭이 큼 — '완화 확정'은 아님



*USD/KRW↓% = 원 강세 출처: CNBC/Yonhap/Trading Economics/Kitco·Tickmill · close 2026-07-15 · 일부 C

쉬운 말 · 1W/1M/3M: 같은 지표를 짧은·중간·긴 기간으로 나란히 보는 방법. 진폭: 위아래 움직이는 크기.

쉬운 해석: CPI+PPI 완화가 이틀째 이어지자, 코스피가 월요 급락분을 하루 만에 크게 되돌렸다



지수화 재구성 B/C · 출처: CNBC/Yonhap · as-of 2026-07-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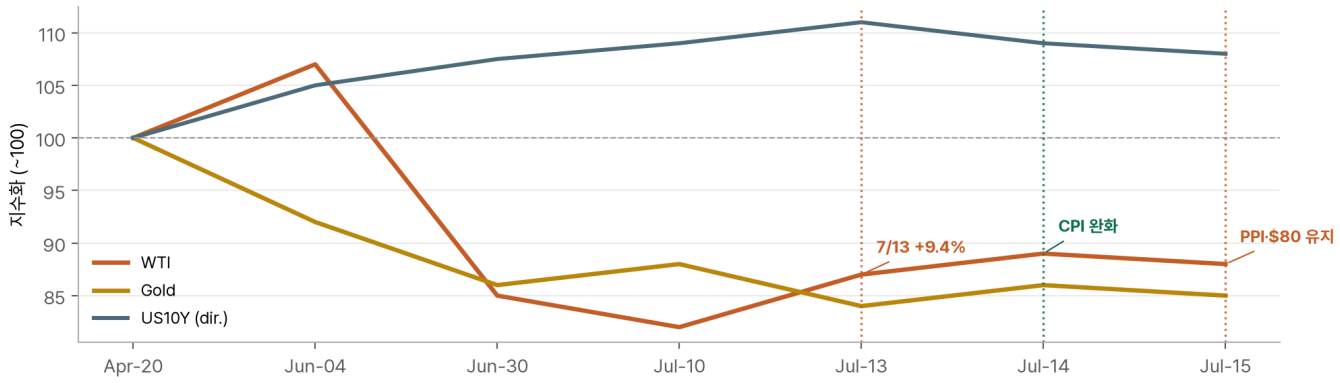
쉬운 말 · 기술적 되돌림: 급락한 만큼을 시장 구조상 되돌리는 반등, '추세 전환'과는 다른 개념. 박스권: 위아래 일정 범위 안에서만 오가는 구간.

원유·금·금리·환율 — 완화 신호 속에서도 유가는 자리를 지켰다

WTI는 여전히 **~80달러** 선, Brent는 **~85–86달러** 선에서 움직였습니다(Kitco·Tickmill, C). 호르무즈 해협 관련 경계가 이어지며, 물가 완화 뉴스에도 유가가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금은 **약 4,030~4,066달러** 구간에서 등락했고(Tickmill, C), 미국 10년물 금리는 **약 4.55%**로 전일보다 소폭 내려갔습니다(Trading Economics 07-15). 원/달러는 서울 3시 30분 기준 **1,484.7원(−8.3원)**으로 원화가 다시 강해졌습니다(Yonhap). 물가·금리는 완화 쪽으로, 유가는 경계 쪽으로 — 같은 날 두 개의 서로 다른 신호가 함께 나온 셈입니다.

쉬운 해석: PPI까지 부드러웠지만, 유가는 호르무즈 경계 속에 80달러 선을 지켰다



힌트: WTI ~$80·Brent ~$85–86 · Gold ~$4,030–4,066 · US10Y ~4.55% (2026-07-15, B/C) · US10Y 방향 스케일 C

쉬운 말 · bp(베이시스포인트): 금리 0.01%포인트. 박스권: 위아래 일정 범위 안에서만 오가는 구간. 프리미엄: 불안해서 가격에 얹는 할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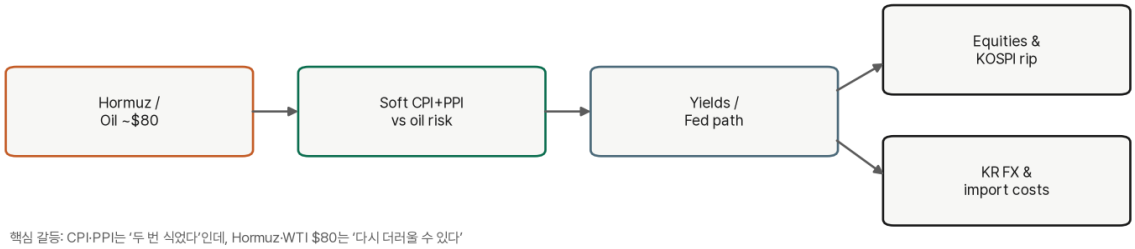
연준·시장 — 숫자는 부드러워졌지만 경계는 남아있다

CPI·PPI가 나란히 완화되며 시장은 연준의 추가 인상 압박이 크게 줄었다고 읽고 있습니다. 다만 유가가 80달러 선을 지키는 한, 에너지발 물가 재점화 위험은 남아 있어 연준 인사들의 발언 톤은 여전히 신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주 남은 발언 일정이 그 신중함을 확인할 짧은 창입니다.

충격은 어떻게 우리 생활·회사로 오나

아래 그림은 '지금 사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어제처럼 **CPI·PPI는 완화 · 유가는 경계**일 때, 기대 인플레·금리·주식·환율이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지도입니다.

충격이 흐르는 길 — CPI·PPI는 내렸어도, 호르무즈·유가가 다시 기대 인플레를 건드린다



핵심 갈등: CPI·PPI는 '두 번 식었다'인데, Hormuz·WTI $80는 '다시 더러울 수 있다'

정리하면 물가 쪽은 두 지표가 함께 식으며 '완화 확정'에 가까워졌지만, 유가·호르무즈라는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어 '안심 확정'까지는 아닙니다. 한국은 하루 폭등으로 숨통이 트였지만, 월요 급락의 흔적(1개월 기준 여전히 두 자릿수 마이너스)은 아직 다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볼 시나리오 (가능성 가중 · 예언 아님)

아래 %는 확정 확률이 아닙니다. 배후 논리: CPI·PPI가 나란히 부드럽고 한국이 급락분을 상당 부분 되돌리면서 **기본 시나리오를 55%로 올렸습니다**. 다만 WTI ~$80·호르무즈 경계가 남아 있어, 상방(완화 랠리 확산)은 20%로 제한하고 하방은 25%로 상방보다 두껍게 유지합니다(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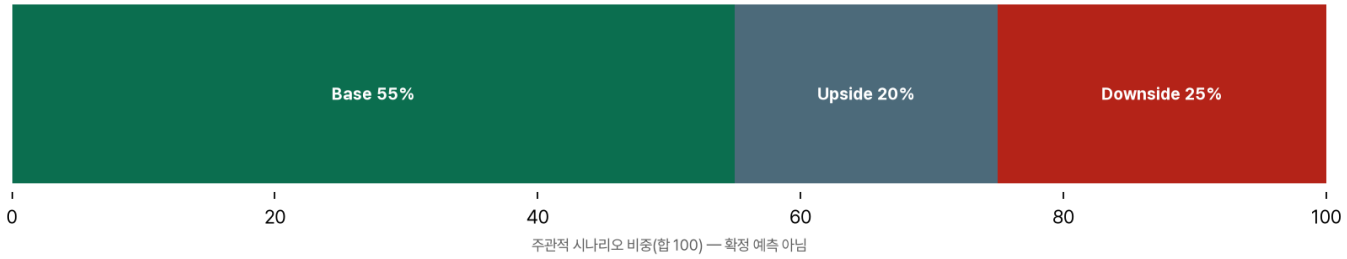
· **기본 55%** — 물가 완화 지속 · 유가 80달러 박스권 · 코스피 반등 일부 유지. 깨지면: 유가 재가속 또는 코스피 반등분 반납.

· **좋은 쪽 20%** — 호르무즈 긴장 완화 + 유가 하락 + 완화 랠리가 미국·한국으로 동반 확산. 깨지면: 해협 관련 헤드라인 재악화.

· **나쁜 쪽 25%** — 호르무즈·유가 재점화 또는 PPI 이면의 누적 압력 부각 → 코스피 되돌림 반납·원/달러 재상승. 깨지면: 유가·금리가 동시에 안정.

체크리스트(48h): WTI/$80·Brent $85대 · 호르무즈 통과·보험료 · 코스피 7,250~7,300대 지지 · 원/달러 1,480대 · 10년물 4.50~4.60% · 7/24 관세·301 일정.

시나리오 지도: 소프트 CPI+PPI·KR 반등으로 기본을 55%로 올렸지만, Hormuz·$80가 하방을 더 두껍게 유지(주관)



주관적 시나리오 비중(합 100) — 확정 예측 아님

글로벌 이슈 세 줄 (경제에 닿는 것만)

· **전쟁·안보** — 호르무즈 해협 경계 지속. 유가가 완화 뉴스 속에서도 80달러 선을 지지하는 주된 이유(Kitco·Tickmill, C).

· **국가간·정책** — CPI·PPI 연속 완화로 연준 추가 인상 압박 약화 관측 — 이번 주 남은 발언 톤이 확인 포인트(Trading Economics 07-15).

· **발명·기술** — 코스피 반등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AI 인프라 관련주 중심으로 나타났다는 관측입니다(HQ 해석, 지수 구성 특성). 통합 AI 리뷰는 월요일 §2에서 더 깊게 다룹니다.

우리 회사·가정에 던지는 질문 (지시 아님)

핵심은 '수익 보장'이 아니라 **운전 조건(원가·환율·심리)**이 다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 원/달러가 1,480대로 내려온 지금, 달러 결제·환헤지 비중을 다시 점검할 것인가?

· 유가 80달러가 굳어질 경우를 대비해 운임·원가 조항을 계약에 열어둘 것인가?

· 코스피의 하루 반등을 '추세'로 볼 것인가, '되돌림'으로 볼 것인가?

· 7/24 관세·한미 301 일정을 다음 주 메모에 올릴 것인가?

출처

· S&P; / Nasdaq / Dow: CNBC (2026-07-15)
· KOSPI / 원·달러: 연합뉴스(Yonhap), 서울 오후 3:30 기준
· PPI: CNBC (2026-07-15)
· US 10Y: Trading Economics (2026-07-15)
· WTI · Brent · Gold: Kitco · Tickmill (일부 C)
· 기준 수치: 2026-07-15 정규장/현지 마감 기준 · 작성일 2026-07-16. 시나리오 %는 주관적 가중이며 확정 예측·매수매도 자문이 아님.
· 호수 HQ-ECON-2026-07-16 · 일간 경제(프레스) · 영문 Executive·워터마크 없음 · 출처 필수.